

7/16(금) 다니엘 묵상 40

다니엘 9:24-2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받은 세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시어 그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흔 이레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일흔 이레에 대한 정한 기한을 예고합니다(24절상,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먼저 일흔 이레를 해석하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으로 볼 때, 일흔 이레는 70에 7을 곱한 값으로 490년을 의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기간을 셋으로 구분하는데 일곱 이레는 49년을, 예수 두 이레는 434년, 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문자적 해석은 현재의 입장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상징적 해석은 아직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보는데 일흔 이레를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무리하게 꿰 맞추지 않으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그리스도적 관점과 상징적 해석’을 종합하는 해석입니다. 저명한 구약 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기를 “이런 중요한 숫자들(70, 7)은 어림잡은 숫자이자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억매일 경우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편파적인 태도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라이트는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언서의 본문들을 해석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먼저, ‘일곱이레’에 관한 해석에 있어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 시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주전 B.C. 458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시기(메대 다리오 원년)로부터 약 49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예수 두 이레’에 대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문자적으로도 예수 두 이레에 해당하는 434년과 비슷하고 특히 본문 24-26절에 기록된 내용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 기간에 오실 이에 대한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24절, “지극히 거룩한 이”;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히,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경우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사야 61: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4:18-19절에서 이사야 61:1-2절의 말씀을 안식일 날에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셨습니다. 또, 단 9장 24절하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성취를 요약하고 있습니다(24절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두번째 예언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26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한 이레’에 대한 해석은 문자적으로는 7년, 상징적으로는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26-27, “예수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대해 문자주의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 또는 A.D. 70년 경에 일어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편, 상징주의자들은 69이레와 마지막 1이레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26절의 ‘한 왕’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27절의 마지막 말씀(“**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대로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그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중심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리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의 주제는 이 땅의 고난과 박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메시아의 언약 성취 그리고 복음의 승리에 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레’ 즉 짧은 기간의 환란의 시기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종말 직전에 나타나게 될 7년(‘한 이레’) 대환란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전에 묵상한 대로 시대마다 계속된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한국도 표면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만 오늘날 점점 인본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남아공을 위한 기도:** 남아공에 폭동이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로 인한 폭동과 약탈로 인해 공권력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E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